

稼働率저하로 고전하는 日本精油業界

최근 日本에서는 石油製品에 대한 需要減少로 精油工場의 稼働率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 通産省의 石油業界 통계에 의하면, 今年 上半期(4~9月)의 石油精製設備(常圧蒸溜裝置)의 稼働率は 52.7%로서 60%를 기록한 작년 同期보다도 3.6포인트 낮은 극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景氣沈滯등으로 인하여 石油需要가 예상밖으로 떨어진 결과, 9月末에 下向修正한 石油供給計劃보다도 下廻하고 있다. 下半期는 石油需要期가 되기 때문에 同供給計劃에 기초한 原油處理計劃으로부터 算定하면 58.9%로 될 전망이지만, 石油業界에서는 「修正供給計劃의 需要展望 그것이 실제보다 높다」고 하는 소리가 강하고 「내년 1~3月間の 減産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下半期の 稼働率도 50%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通産省이 추진하고 있는 設備處理計劃과 관련하여 앞으로 다시 設備廢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通産省의 資源에너지庁과 石油業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서 石油業界 稼働率は 4月이 60.1%로 60%선을 겨우 벗어난 이후로는, 5月 51.9%, 6月 46.3%, 7월 52.9%, 8월 54.1%, 9월 50.8%로 上半期에 52.7%에 머물렀다.

石油精製設備의 稼働率は 年間을 통하여 石油需要期와 非需要期로 차이가 있고, 여름의 非需要期를 가진 上半期는 設備의 정기보수도 실시하기 때문에 下半期에 비하여 稼働率が 낮은 것이 보통이다. 6月の 稼働率が 50%도 못되는 것은 이 定期補修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上半期라도 이란·이라크전쟁 발생전인 79年度の 69.9%와 비교하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나프타와 벵커-C油와 같은 대량생산하는 製品을 중심으로한 石油需要의 下落과 그것에 따르는 생산감소의 심각함을 다시 나타내고 있다.

今年 下半期에 대해서는 9月末의 下向修正石油供給計劃에 原油處理量이 1억180만kl로 되어 있기 때문에 稼働率は 上半期보다 6.2포인트 상승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石油業界内에서는 上半期末의 石油在庫가 공급계획에 비해 약 150만kl 상회하고, 또 下半期の 修正供給計劃도 業界에 상보다 약 150~160만kl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供給計劃 대로 생산을 계속하면 下半期에만도 약 300만kl의 供給過剩이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더우기 精油各社は 현재 9月末부터 시작된 대폭적인 換率上昇에 따른 換差損을 보전하기 위하여 11月の 價格引上을 검토하고 있지만, 供給過剩 상태하에서의 價格引上에도 문제점이 많아 에너지庁에 대해 供給計劃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下半期の 稼働率は 上半期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서 81年度에 59.5%로 60% 이하로 떨어진 稼働率が 올해에는 더욱 저하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業界内에서는 전부터 通産省의 100만배럴 設備處理計劃에 대해 「이미 稼働率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根拠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 石油審議會 石油部会小委員會가 제2차 聽聞會를 시작하였다. 設備의 약 半이 쉬고 있는 이상, 이 聽聞會中에 各精油会社들은 지금까지보다도 더 구체적인 設備對策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

